

제420회 국회
(임시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
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6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 위원장(권영진)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3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 간사(이수진·김은혜) 인사 4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오늘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제가 가장 최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달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소중한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29일 사고 이후에 현장에 쫓 있어 왔는데 사고 당일부터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현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유족대표단 또 유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왔고 또 책임감을 다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권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달희 감사합니다.

권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영진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영진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장님,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권영진) 인사

(10시05분)

○위원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권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 피해구제,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아울러 이러한 참

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정부기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분들이 사고조사에 있어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와 피해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우리 다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다음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권영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해 나갈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위원님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권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주문에 따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위원회의 수는 각 7인으로 하고 관련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장으로 김은혜 위원님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진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2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법안심사 등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간사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여야 위원님들을 교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o 간사(이수진·김은혜) 인사

(10시12분)

○위원장 권영진 그러면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간사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가 이번 참사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후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유가족분들의 비통함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감히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합동 추모식

에 참석해 유가족분들을 뵙고 여러 말씀을 듣겠지만 늘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특위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개최하고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진 이수진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전날에 이렇게 여야 간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또 그분들의 시선으로 이번 특위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위에서 아마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진 김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향엽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교차로 인사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먼저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백일흔아홉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두 분의 부상자와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수습에 함께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가 일어난 당일부터 공항에 상주하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상황을 같이 봐 왔었고 그다음에 장례식까지의 그 절차에 조문까지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피해 지원을 하는 일에 그리고 특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조금도 그분들의 존엄에,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대식입니다.

이번에 12월 29일 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인들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저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초등학교를 무안군 현경면 해운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옆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애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고인들을 어떻게 하면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우리 국가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먼저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등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박했던 참사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참사로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나라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여러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에서는 유가족 및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로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율의 김미애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도 우리 유가족분들은 그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침착하게 정부가 하는 일들 또 자원봉사자, 여러 분들이 하는 일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큰 탈 없이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희생하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기뻐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비극적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는 정신없는 시간들이 흘러왔지만 아마 지금부터 우리 유가족들은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 아픔이 더 크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유가족들께, 아까 권향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합니다.

○**손명수 위원** 경기도 용인시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위원입니다.

저도 무엇보다 먼저 이번 항공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사고조사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 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 또 유가족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정말 가슴 절절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항상 행정할 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참사 이후에 우리 여야 국토위 간사님께서 상주하고 숙박하면서 유족들 대표의 옆에서 정말 두 간사님께서 유족협회의 총무 역할처럼 그렇게 정부와 유족 간 중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시신을 다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앞으로도 ‘국가가 우리 곁에 있구나’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 일괄적인 그냥 뭉뚱그려진, 유족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 국가의 시스템을 꼼꼼히 찾아보면 그 유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의 국토위 간사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지역에 상주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시신 수습이 다 될 동안 검안하고, 소방 경찰 국토부 행안부 지역의 공직자들은 눈에 띄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DNA 검사도 하고 장례 수습을 다한 장례지도사들 이런 분들에게 고마움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희생자 가족들께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에 세심한 지원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께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사명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나서는 이유는 함께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나 사회 시스템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특위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명칭 문제로 무안이나 제주 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고의 명칭만이라도 특정 지역을 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특히나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제주와 무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관광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에 더욱더 협력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미 제목에……

○**이성권 위원** 그 취지는 이미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서로가.

부산 사하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특위 참여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하고 또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상임위보다도 이번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유가족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의혹을 느끼고 있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원인과 진상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공화국’ ‘참사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위가 발족이 될 때 여야의 이견 없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게 되었는데 이번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여야 정쟁이 없는 협치의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를 전진숙입니다.

먼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사 수습에 투입됐던 수많은 소방·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먼저 취재 현장에 달려와서 현장 소식을 전해 줬던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전합니다.

정말 아프고도 너무나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광주·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 때문에 동네가 무너지고 동네가 온 도시의 슬픔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규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가족을 비롯해서 긴급재난 대응에 투입됐던 인력, 거기에 왔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무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을 포함해서 심리치료 그리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행정 중심의 전달 체계 갖고는 도무지 안 된 다라고 하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희생자들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

비스들을 만들어 내고 이 속에서 정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광주시·복지부 그리고 피해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진행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시면서 이 법이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어떤 다른 목소리 없이 한 번에 합의했던 특위인 만큼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직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한 특위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위원입니다.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상규명과 그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으로서 무엇보다 우리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무안공항 현장에 달려갔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공항 곳곳을 누비면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었고 또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례를 치른 이후 지금 심적으로 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특히 이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유가족 지원과 그리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준호 위원 먼저 금번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깊은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동료 특위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출신 정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사 당일 유가족들은 서 있을 공간조차 없었고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스 보도는 쏟아졌고 급기야 우리가 왜 무안공항 소식을 화면의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 하느냐며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태 수습은 법률과 정부의 매뉴얼이 아닌 유가족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수용하면서 자리가 잡혀 가고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대응 매뉴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매뉴얼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이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참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사고수습, 사고조사와 예방대책 그리고

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특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참으로 보람되고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말씀드리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국민들에게 2차 피해가 없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는 명칭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들을 받들어서 저희 특별위원회 명칭에서 특정 지역의 명칭을 뺐습니다. 빼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위성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보면 우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로 그분들을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2차 가해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지하는 것을 촉구하고 또 엄벌을 촉구하는 그 결의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을 의결할까 생각했습니다만 또 당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마치고 나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손명수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결의안을 가결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임위 어떤 특위에서 하느냐보다도 그 뜻을 받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결의안이 가결되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함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인사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서기영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행정실장 등 직원들이 우리 특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오.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는 1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고 추모식 이후에는 피해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 꼭 이 말씀은 했으면 좋겠다……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합동 추모식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담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개인 사정 때문에 불참할 경우 보좌진 한 명이라도 같이 배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위원장 권영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은 보좌진 한 분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진상규명및재발방지(7인)	권향엽 문금주 손명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4)
	◎김은혜 서천호 이성권	국민의힘(3)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7인)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더불어민주당(3)
	김대식 김미애 이달희	국민의힘(3)
	백선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4인)

권영진 권향엽 김대식 김미애 김은혜 문금주 백선희 손명수 위성곤 이달희
이성권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 서기영